

금요 양성 2025년 7월 11일 회칙 (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

재속프란치스코 회원은 어떤 점에서 다른 천주교 신자들을 구별되는가? (3부)

이번주에는 우리 삶의 **회칙과 회헌에 대해 살펴보겠다.**

회칙과 회헌 - 우리 재속프란치스코들에게는 **교회가 인준한 회칙과 회헌**이 있으니 이는 참으로 축복이다. 이 문서들은 우리가 프란치스코 카리스마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자주 회칙을 읽고 서문과 각 조항이 천주교인으로서 또 프란치스코로서의 삶에 대해 일러 주는 것에 대해 기도한다. 이것은 다른 천주교인이 누릴수 없는 **큰 이점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서문은 **신자들에게 보낸 첫번째 편지**에서 발췌된 것이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성인 자신이 직접 **우리가 참회와 회개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신다.

회칙의 1 장에는 3조항 밖에 없지만, **우리가 프란치스코 가족안에 확실히 속해 있음을 보여 준다.** 그것은 우리의 회칙이 교황청에 의해 인준된 것이며 **13세기에 프란시스 성인에 의해 창설된 세 수도회의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가 수세기에 걸쳐서 **연계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회칙/2 장은 4조 -19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에서 우리는 프란치스코인 우리를 위해 마련된 **삶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며, 어떻게 매일의 회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복음은 살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신 성인의 발자취를 어떻게 따라야 하며, 어떻게 단순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와 모든 창조물에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배운다.** 회칙의 이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부께로의 매일의 여정에 있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한 일이다. 다른 가톨릭들은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런 이점이다.

회칙 3 장은 형제회 생활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며 우리의 **전 세계적인 수도회의 구조**와 형제회 생활의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회헌은 회칙을 풀이해서 회칙에서 요구되는 것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긴 문서이다. 이 문서도 교황청 인준을 받은 것이이고, 회칙을 따르겠다고 약속할 때, 회헌에 열거된 것들도 또한 따르겠다고 약속을 한다.

다음은 1978년 회칙이 작성되기 전에 있었던 아시시 회의에서 결정된 **회칙의 17가지의 핵심 요소**들이다.

성 프란시스코의 정신에 따라 복음을 산다.

끊임없이 회개한다. (메타노이아)

모든 사람과 피조물에게 형제 자매가 되는 삶을 산다.

예수님과 친교안에 산다.

가난하고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을 따른다.

교회의 삶과 사명안에서 나눈다.
아버지의 사랑안에서 나눈다.
평화의 도구가 된다.
개인, 공동, 전례 기도 생활을 한다.
기쁨의 삶을 산다.
재속성의 영성을 가진다.
아버지에게로 가는 순례자가 된다.
평신도 사도직에 참여한다.
운이 덜 좋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한다.
사목자들과의 대화와 협력의 자세로 교회에 충성한다.
성령의 활동에 마음을 문을 열어둔다.
단순하고, 겸손되고, 작은자로 산다.

토론과 저널에 답을 하기 위한 질문

+회칙의 요소중 어느 것이 프란치스칸으로서의 매일의 삶을 도와주고 있는가?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설명해 보시오.

+위의 요소중 어떤 항목이 실천하기 힘든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항목을 당신 삶의 일부로 만들기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

+회칙의 어떤 조항이 어떤 요소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집어낼 수 있는가?.